

장성 요양병원 환자 결박 없다고 하더니...

경찰 뒤늦게 확인...참사 초기 소방서 등 부인 배경 의문

소화기 일부 캐비닛 잠금 상태 보관 범위 위반 사실도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망자들은 사고 당시 침상에 묶인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담양 소방서장과 장성 경찰은 사고 발생 수일 동안 사망자들이 결박돼 있지 않았다고 발표해 그 배경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장성 요양병원 화재 당시 일부 환자들이 결박돼 있었고 소화기가 제대로 비치돼 있지 않는 등 병원 측의 부실한 환자 관리가 드러나고 있다. 경찰은 수사 결과 병원측이 환자 치료, 화재 등 안전 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환자 관리 편의'에 중점을 둔 것으로 파악했다. 병원 측이 적은 인력으로 환자 관리를 쉽게 하기 위해 소방 법규를 위

반하는가 하면, 부당한 환자 결박 등을 행했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치매 환자 '신체 결박의 딜레마'=1일 장성경찰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장성 효실전사랑나눔요양병원에서는 화재 당시 일부 환자들은 침상에 신체 일부가 묶여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결박된 일부 환자들은 자력 대피가 불가능 했지만 근무 인력이 부족했던데다, 자동이 불발했던 환자도 적지 않아 소방관들은 침대를 들어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사건 발생 당일 소방서장이 언론과 유가족 등을 상대로 '결박 없었다'고 명백히 밝혀, 그 이유에 대한 수사도 불가

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찰도 육안으로 간단히 판별이 가능한 사안임에도 사건 초기 결박이 없었다고 밝힌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감사가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체 결박'이란 환자 치료와 보호를 위해 일시적으로 신체 일부를 억제대 등으로 묶는 것으로, 환자가 자해하거나 치료를 위해 연결한 인공 호흡기 등을 제거할 가능성이 큰 경우 이를 막기 위해 의사의 명한 판단·지시에 의해 제한적으로 이뤄진다.

경찰은 해당 병원 의사와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입원 과정에서 병원 측은 보호자를 상대로 '억제 동의서'를 쓰게 했으며 ▲화재 당시 일부 환자가 결박돼 있었던 점을 확인했다. 다만, 몇명의 환자가 결박돼 있었는 지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통해 밝혀낸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억제 동의서' 작성 여부가 환자 상태가 아닌, 관리 편의를 위해 모든 입원

환자들에 대해 관행적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중이다.

◇부실한 안전 점검 드러나=경찰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요양병원의 경우 소화기 11대(33㎡당 1대)가 비치돼 있어야 하지만 당일 3대만 비치된 점을 확인했다.

경찰은 나머지 8대의 소화기가 잠금 장치기 된 복도 캐비닛에 보관중인 사실도 밝혀냈다.

경찰은 "환자들에 의해 소화기가 흥기로 쓰일 것을 걱정한 나머지 소방점검 등 행정기관 점검이 이뤄질때만 정상적으로 소화기를 비치했다"는 병원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요양병원이 매월 민간 업체를 통한 소방 점검을 받았다는 점에서 병원이 보관중인 '소방점검 결과'를 분석하는 한편, 업체를 대상으로 허위·부실 안전 점검 등 위법 여부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19 몰림 09:08
해질 19:42 달림 22:57

진도해상 '물결 높음'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 있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비	19/21	보성	비	18/20
목포	비	18/22	순천	비	19/22
여수	비	18/21	영광	비	18/20
나주	비	18/20	진도	비	19/22
완도	비	19/22	전주	비	21/29
구례	비	18/22	군산	비	19/22
강진	비	19/22	남원	비	19/23
해남	비	19/22	흑산도	비	17/20
장성	비	18/20			



◇바다 날씨

지역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남동~남	1.0~2.0	동~남동	1.5~2.5
남해	앞바다	남동~남	1.5~3.0	동~남동	2.0~4.0
서부	앞바다	남동~남	1.0~2.0	동~남동	1.5~2.5
남부	앞바다	남동~남	1.5~3.0	남동~남	2.0~4.0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5:01	10:16
여수	16:54	22:09
	11:31	05:34
00:00		17:35

◇주간 날씨

3(화)	4(수)	5(목)	6(금)	7(토)	8(일)	9(월)
19/22	19/26	19/27	18/27	18/28	18/28	19/28

◇생활지수

	식중독	61
	운동	40
	빨래	60



유치원생 '감성놀이 체험'

지난 달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광주 중외공원 일대에서 광주지역 유치원생 8000여명이 소방안전과 경찰 체험, 버블쇼, 매직쇼 등 '오감만족 감성놀이' 행사를 즐겼다. 이 행사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광주지회(회장 백희숙)가 주최하고, 광주일보사와 매직이이 주관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10만원 어치 장 봤는데 '쌈쌈이 헤프다' 핀잔에...

광주지법, 남편 돈기 살해 60대에 징역 10년 선고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일 부부싸움 중 남편을 돈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여·66)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자녀와 친족들이 지출 수 없는 상처와 정신적 고통을 입었는데도 피고인인 A씨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

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10년 넘도록 투병한 남편을 간호하면서 홀로 가족을 부양했고 남편의 모욕적인 말에 감정이 폭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자녀가 선처를 바

라는 점 등은 참작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전 8시께 자신의 집에서 딸다툼하던 중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70)을 돈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투병중인 남편을 위해 시장에서 10만원 상당의 식재료를 사왔는데도 "쌈쌈이가 헤프다"는 말을 듣고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억대 수취' 대전 정부통합전산센터 팀장 징역 5년

업체 대표 등 3명도 징역형

광주지법 형사 12부(마옥현 부장판사)는 1일 용역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 범죄 기중 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대전 정부통합전산센터 팀장 유모(57)씨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씨에게 뇌물을 준 A사 대표 이모(60)씨에 대해 징역 1년을, 뇌물을 주고 받은 광주 정부통합전산센터 계장 함모(58)씨와 B사 상무 강모(49)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씨는 벌금 200만원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는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3년 넘는 기간 정지적으로 뇌물을 수수해 그 액수가 1억원을 넘는"이라며 "친인척을 뇌물공여자 회사에 형식적으로 취업시키는 방법으로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고 지적했다.

유씨는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정부 사업 계획이나 발주시점 등을 알려주는 대가로 처조카, 처남 명의의 계좌로 36차례에 걸쳐 이씨로부터 1억 600여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와 이씨는 과거 한 업체에서 근무했던 사이로 유씨 친인척에게 급여를 주는 형식으로 뇌물을 위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檢, '후보 매수설' 담양군수 후보 선거사무실 압수수색

광주지검 공안부(양중진 부장검사)는 지난 30일 무소속 담양군수 후보 A씨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선거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무소속으로 나섰다 지난 27일 후보를 사퇴한 B씨 집과 사무실, B씨 측근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최근 불거진 '후보 매수설'과 관련한 경위를 파

악할 방침이다. 한편,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A, B씨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선관위는 당시 A씨 측이 올해 3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B씨 측근과 단일화를 논의하면서 인사권 및 선거비용 보전 등 사퇴의 대가로 상대 후보를 매수하려 한 혐의로 고발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영숙 이사, 유경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까지!

결혼정보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출입, 전주고등학교출입) **서울대학교총동창회 결혼정보서비스업체**

초혼		추천 회원	재혼		
男	女		男	女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의사, 변호사	32-65세
판사, 검사, 변리사, 회계사	28-47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대기업 간부	36-59세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26-39세	회사원, 자영업	33-6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무출산 여성' 희망	31-58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학원(음악)원장, 감사	27-42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		
교사, 교수	28-49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하나은행 B/D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안주 이리함) (063) **275-7766**

Eco Dome House
에코돔하우스

웰빙시대와 친환경 건축자재의 선택!

에코돔하우스는 세계 유일의 레고 조립형(특히) 초경량 단열보드를 이용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시공 가능하며 당사에서 생산하는 특허제품 이지골드코트의 성능을 고스란히 등에 접목시킨 **기능성 친환경 돔하우스**입니다.

에코돔하우스 기능성
불연 / 결로방지 / 원적외선 방출 / 음이온 발생 / 탈취 가능 / 항곰팡이 가능 / 항균 가능 / 복사열 방지 / 친환경 건축자재

대리점문의 본사 : 충남 홍성군 갈산면 내포로 1607-19 T. 041-634-9909 / T. 010-7514-3266

(주)홍성이엔지
www.hsegreen.com

호남영업본부 : 광주광역시 북구 우동로 251 T. 010-2028-5900 / T. 062-513-1400
대리점 : 광주남구 T. 010-5679-8100 / 광주서구 T. 010-5609-3500 / 광주광산구 T. 010-3641-9680
전남순천 T. 010-3633-3663 / 전남여천 T. 010-2788-0392 /